

# 대학생, 스님처럼 사는 법 배운다

### 美 펜실베이니아대 종교수업 수백명 수강 신청 '관찰' '인식' '절제' 통해 내면의 자아발견 기대

美 펜실베이니아대의 종교수업이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AP통신은 2월 12일 '학생들 스님처럼 사는 법을 배운다(STUDENTS LEARN TO LIVE LIKE MONKS)'라는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에서는 "종교학자 저스틴 맥다니엘(Justin McDaniel)이 재학생 17명만을 선발·진행하는 종교수업에 수백여 명의 재학생들이 수강신청을 했다"며 "모든 욕구를 절제하는 수업과정에도 불구하고, 한 종교학자의 실험적 종교수업이 학생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전했다.

연애의 즐거움·최첨단 전자기기의 오락함도 멀리해야 하고, 커피·술·담배와 같이 감각적인 먹을거리도 포기해야 하는, 마치 수행자와 같은 생활을 실천해야 하는 이 수업을 학생들은 왜 듣고자 했을까?

맥다니엘 교수는 "(학생들이) 과거 속에서 최고의 가치를 찾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수업을 계획하게 됐다"며 "수업의 내용은 '관찰' '인식' '절제'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들 불교와 천주교 수행자들이 실천하는 덕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수업 강의실에 앉아 있는 학생들의 모습은 어느 학생들과는 사뭇 다르다. 남학생들은 흰색 셔츠를, 여학생들은 화장 안한 얼굴에 장신구도 하지 않은 채 검은색 스커트를 입고 있다. 책상에는 노트북이 아닌 오직 노트와 필기구만 놓여 있다.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학기가 종료되는 5월 중순까지 수업 외 시간에도 채식은 물론 해가 지고 나면 금식과 묵언(默言)을 실천해야 하고, 뉴스 시청도 하지 않아야 한다. 과제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고 책만을 참조해야 한다.

이처럼 학기가 끝날 때까지 금욕과 고행의 길만을 가야하는 수업을 학생들은 왜 스스로 선택했을까?

수강생 매데린 키서(Madelyn Keyser, 2학년·20세)는 "무척 힘든 과정이지만, 내면에 있을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내 자신을 알게 되면, 한자들을 더욱 잘 보



명상 수업을 받고 있는 대학생들. 5월 중순까지 채식, 뉴스 시청·인터넷 사용금지, 묵언 등의 수행을 한다.

살릴 수 있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그녀는 펜실베이니아대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있다.

수강생 레이첼 아이센버그(Rachel Eisenberg, 1학년, 17세)는 "한 학기 동안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느끼고 관찰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자신을 알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자신을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

이다"라고 말했다. 맥다니엘 교수는 "수강을 신청한 학생들과 면담을 진행해 선발한 학생들을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수강생들은 이 수업이 단순한 금욕과 고행만을 강요한 수업이 아닌, 자신의 내면에 높은 깨달음을 향한 길을 스스로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 웨이위엔스, 중국 최초 'SNS 축원 서비스'

### 대기오염 산불 예방...불교미래 모습

중국의 유명 사찰이 이동통신사와 제휴해 춘절 기간 동안 중국 최초로 'SNS 축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차이나데일리(www.chinadaily.com)가 2월 9일 보도했다.

춘절이 되면 대부분의 중국인은 가족 모두 사찰을 방문해 부처님께 향공양을 올리는 전통을 지킨다. 웨이위엔스(Weyuanyuan Temple, 귀원사)와 차이나 모바일(China Mobile)이 함께 내놓은 이 서비스는 휴대용 단말기를 통해 축원 문자를 이동통신사에 보내면, 이동통신사는 이를 사찰 경내에 설치된 LED 게시판에 반영하고, 경내 스님들은 의식을 올리며 축원을 읽어 내려가는 과정을 밟는다.

후베이(Hubei) 우한(Wuhan)시의 웨이위엔스는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향을 태우면 대기가 오염되고 산불이 날 수도 있는데, 이 서비스가 그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웨이위엔스는 "이는 'SNS 축원 서비스'를 권유하고 있는 까닭이자, 이 서비스가 전환점이라고 말하는 이유이다"라고 말했다.

청나라 시대에 세워진 웨이위엔스는 우한의 4대 명찰 중 하나이다. 1월 27일에는 60만여 명이 향공양을



춘절에 향공양을 올리는 중국인들

올리기 위해 사찰을 다녀갔다. 이에 따라 우한시 경찰 4000명이 산불과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경내 안팎에 투입되기도 했다.

'SNS 축원 서비스'는 0.15위안(약 27원)의 수수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3만여 명이 이용했다. 축원 내용은 사찰 남서쪽 코너에 설치된 LED게시판에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게재됐다.

서비스 이용자 양 메이윈(Yang Meiqin·49)은 "사찰을 방문하지 않고, 축원을 할 수 있어 편리하다. 이 서비스는 불교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 상트페테르부르크博 '불교의 보물' 전 성황

### 10년 전 시작, 40개 도시 순회 6만5000여 명 관람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St. Peter-sburg) 박물관의 '불교의 보물(Treasures of Buddhism)' 전(展)이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얻고 있다"고 상트페테르부르크타임즈(www.times.spb.ru)가 2월 15일 보도했다.

이 전시회는 10년 전 러시아 연방과 점경국의 중요 불교미술을 소개하고자 마련한 상트페테르부르크 박물관의 기획전이다. 이후 10년간 러시아 연방 40개 도시를 순회하며 6만5천여 명에게 불교미술을 선보였다.

이 전시회에는 러시아는 물론 네팔, 인도, 티베트, 몽골의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대표적인 불교미술이 소개되는 한편 러시아 연방 마리엘 공화국(Republic of Mari El)의 불교계가 준비한 '탑 그리고 소원성취(Stupa, Wish Fulfilling)' 주제 사진전도 마련됐다.

상트페테르부르크 박물관은 "2003년 '도시(상트페테르부르크) 탄생 30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불교의



'불교의 보물' 전 관람 풍경

보물' 전시 10년이 지난 지금, 처음 열린 곳에서 마지막 전시를 하게됐다"며 "제정 러시아 시대에 찬란했던 불교를 이해하고, 현대 불교미술의 동향을 가능하게 하는 전시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 여래장 사상 연구의 세계적인 선구자

### 세계의 불교학자(7)

다카사키 지기도 도쿄대 명예교수

'일체 중생, 살아 있는 모든 것엔 불성이 있다.[一切衆生悉有佛性]' 대승 경전 중 하나인 《열반경(涅槃經)》에 여러 번 반복돼 나오는 내용이다. 불성은 부처의 본성을 뜻하고, 부처의 본성은 '부처가 될 가능성을 지닌 본바탕'을 말한다. 그러므로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는 말은 누구라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불교계에서는 이러한 '불성론(佛性論)'을 '여래장(如來藏)사상'이라고 말한다. 여래장은 불성과 같은 뜻이다. 여래(如來), 즉 부처가 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성론은 곧 여래장 사상과 직결된다.

이 여래장사상 연구에 평생을 바친 학자가 있다. 87세 고령의 나이에도 왕성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다카사키 지기도(高崎直道) 도쿄대 명예교수가 그 주인공이다.

1926년 동경에서 태어난 다카사키 교수는 어려서부터 종교와 역사에 관심이 많았다. 고등학교 졸업 후 동경대 인도철학과에 들어간 그는 인도불교와 고대 인도 바라문 사상 '우파니샤드의 아트만관'을 연구했다.

다카사키 교수가 여래장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계기는 1950년 일본에서 《보성론(寶性論)》의 산스크리트 원전 텍스트가 출판됐기 때문이었다. 《보성론》은 인도 대승불교의 여래장사상을 설명한 논서 중 유일하게 산스크리트 원전이 남아있는 문헌이다.

하지만 연구에 한계를 느낀 다카사키 교수는 도쿄대 졸업 후, 1954년 인도 뭍나 대학으로 유학을 떠났다. 그곳에서 만난 산스크리트어 대가 고갈레(V. V. Gokhale)교수의 지도 아래 여래장 사상 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뭍나 대학에서 《보성론》의 영어 번역을 위주로 한 박사 논문 '보성론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Ratnagotravibhāga)'로 1958년 학위를 취득했다. 귀국한 뒤에는 다시 도쿄대 박사과정으로 들어가 '여래장사상의 형성(如來藏思想の形成)'으로 1972년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훗날 인도 뭍나 대학에서 쓴 '보성론에 관한 연구'는 당시 논문 심사원 중 한명이었던 이탈리아 출신 투찌(G. Tucci) 교수의 호의로 1966년 로마 동양학연구소(Istituto Italiano per lo Studio e Superiori di Religione)에서 출판돼 다카사키 교수의 이름을 국제 불교학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또 도쿄대에서 쓴 '여래장사상의 형성'으로 1975년 일본학사원은사상(日本學士院恩賜賞)을 수상했다. 일본학사원은사상은



뛰어난 학술 논문 및 연구업적을 남긴 학자에게 주는 상으로, 일본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술상이다.

그 후 다카사키 교수는 오사카 대학 조교수를 거쳐 1977년 도쿄대 교수가 됐다. 교수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꾸준한 저술활동으로 대승불교·유식사상(唯識思想)·여래장사상 등을 망라한 60여권에 이르는 방대한 저서를 남겼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인도사상(インド思想)》《대승불교사상론(大乘佛敎思想論)》《대승기신론을 읽는다(大乘起信論を讀む)》《불성인가 무엇인가(佛性とは何か)》《유식입문(唯識入門)》 등이 있다.

### '보성론(佛性論)' 최고 권위자

### 보성론 연구로 국제 학계 등장

### 대승불교 관련 60여권 저술 남겨

### 87세 나이에도 왕성한 연구 활동

최근에는 위 저서 외에 지금까지 60여 년에 걸쳐 이룩한 자신의 학문적 업적을 9권의 책으로 집대성한 《다카사키 지기도 저작집(高崎直道著書集)》을 출판했다. 이 저작집은 다카사키 교수의 도쿄대 박사학위 논문 '여래장사상의 형성'을 시작으로 여래장과 불성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와 유식(唯識) 화엄사상(華嚴思想) 《보성론》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 《능가경(楞伽經)》 등 대승불교의 중요한 사상을 포괄적으로 규명했다. 또 저작집을 집필할 때, 불교 유식학의 대가 독일 함브르크대 람베르트 슈미트하우젠(Lambert Schmithausen) 전교수와 일본의 중관(中觀)학자, 코마자와대(駒澤大) 마쓰모토 시로(松本史朗)교수 등 다카사키 교수의 연구를 비판적 시각으로 본 라이벌 학자들의 주장도 수용해 연구의 균형을 유지했다.

한국은 물론 세계의 불교학자 중에서 여래장사상을 연구하는 학자라면 반드시 다카사키 교수의 논문을 읽어야 할 정도로 그 쌓은 업적은 방대하다. 한명의 훌륭한 학자가 얼마나 큰 파급효과를 미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가 아닐 수 없다.

주성원 기자 jsw@hyunbul.com

壬辰年은 龍의 해입니다!  
해동용궁사에 오셔서  
소원성취하십시오!

한 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해동용궁사

☎ 051) 722-7755